

# 곡성군 인구소멸 극복 ‘수상레포트 단지’로 승부수 띄웠다

경정장·위터파크 유치...일자리 ‘사활’  
‘사회 환원형’ K-관광 랜드마크 도약  
위기 정면 돌파...지방재정·경제 활력

곡성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상레포트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경정장을 포함한 복합 레저 시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수상레포트 관광단지 조성과 경정장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군은 인구감소 지수 전국 5위, 고령 인구 비율이 41.4%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지역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은 젊은 층을 붙잡을 수 있는 핵심 열쇠가 ‘일자리’에 있다고 판단하며, 단순 관광지 조성을 넘어 수상레포트 관광단지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레저·관광 산업 분야의

직·간접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는 최근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K-관광 혁신팀’을 출범시키며 지역 관광 성장 모델을 강조하는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곡성 수상레포트 관광단지는 경정장을 중심으로 위터파크, 리조트, 래프팅파크 등을 집적화해 관광, 레저, 문화, 숙박, 체험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류형 산업 클러스터를 목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호남권의 균형 발전을

이끌 ‘K-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경북 영천경마공원이 지역 경제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곡성 경정장이 호남 관광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사행산업 시설과의 차별화 전략도 눈에 띈다. 경주가 없는 날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시설을 전면 개방해 공원이자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회 환원형 모델’을 도입해 단순한 레이스가 아닌 레저와 문화가 결합된 공간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방재정 확충,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곡성군은 해당 사업이 국토균형발전과 소멸 위기 지역 재도약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만큼, 경주 시행 허가 등 행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허가가 이뤄지는 즉시 민간 투자를 본격화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수상레포트 관광단지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복합환원공간”이라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광양에 中企 인력양성 거점 시설 들어선다

중진공 전남연수원 태인동에 건립  
334억원 투입 복합 교육시설 조성  
인재 양성 허브...年 3천500명 이수

중소기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중진공 전남연수원’이 광양에 등지를 튼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태인동 명당3지구 (1805-1번지 일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연수원 (중진공 전남연수원)’ 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감도> 해당 연수원은 약 3만3천㎡ 부지에 들어서는 중소기업 인력양성 거점 시설이다. 총사업비 334억원 (국비)이 투입되며, 연수 시설·기숙사·컨벤션홀·체육시설 등을 갖춘 지상 6층 규모의 복합형 교육 시설로 조성된다. 중진공은 오는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이에 발맞



춰 부지 무상 제공과 기반 시설 조성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있다. 준공 이후 전남연수원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 거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광양만권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은 물론, AI (인공지능)·스마트제조 (AX)·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연간 약 3천500명이 이곳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컨벤션홀과 콘도형 기숙사, 주차장 등 일부 편의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며, 시는 연수원이 단순한 기업 교육 시설에 머물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전남연수원 착공은 광양시가 중소기업 혁신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AI·스마트제조 등 급변하는 미래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 산업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지난 18일 ‘제3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한국홍보관에서 열린 정책발표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브라질 COP30서 ‘기후주간’ 유치 총력

부시장 등 민관 합동단 파견 국제 홍보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부 차원 지원”

여수시가 ‘2026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유치를 위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0)’에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전 세계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모여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 전략 등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대표단은 COP30 한국홍보관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기후주간 유치 전략 ▲탄소중립 비전 ▲다층적 국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며 국

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 장관은 여수시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여수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최정기 부시장 이 기후주간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으며, 이클레이 (ICLEI) 글로벌정책 관계자와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여수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 협력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이상훈 COP30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동행해 현지에서 유치 열기를 더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정책발표회는 여수가 글로벌 기후행동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전남도,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2026 기후주간’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화순군 “2006년생, 최대 15만원 문화 혜택”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연·전시 지원

화순군은 23일 “관내에 주소지를 둔 19세 (2006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이 오는 30일에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 전시 등의 관람비를 연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하는 제도다. 군은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약 194명이 문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발급받은 포인트는 협력 예매처인 YES24와 인터파크 티켓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 기한은 다음 달 31일 까지다.

/화순=이병철 기자



## 보성녹차, 전국 카페서 만난다...소비 확대 ‘날개’

차자교회-카페사장협동조합 MOU

보성녹차가 전국 카페망을 타고 소비 확대에 나선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사)한국차자교회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보성한국차자교회 사무실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사상군 한국차자교회 대표와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보성군 및 전남차산업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차산업과 카페산업의 연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국 카페 매장 내 국산 차 홍보 및 판촉 ▲유기농 녹차·말차의 일 상 소비 확대 ▲산업 간 연계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협력에 나선다. 보성군 관계자는 “국내 카페 시장은 보성차의 대중화를 이끌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조합과 협력해 보성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차자교회는 이번 협약에 이어 오는 25일 대전 ‘뽕 도앗당협동조합’과 MOU를 앞두고 있으며, 녹차를 제빵 제품에 접목하며 새로운 소비층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청 송강정실에서 양 지역 농·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담양군 제공>

## 담양-순창 농·축협, 경계 넘어 ‘상생 맞손’

인적·물적 자원 등 교류 확대  
지자체 이어 민간 경제 협력

담양과 전북 순창의 농·축협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군청 송강정실에서 양 지역 농·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를 비롯해 NH농협 전남지역 경영부분부장, 이창완 전북지역 경영부분부장, 이광재 담양군지부장, 신종철 순창군지부장과 지역농축협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연계 ▲인적·물적 자원 교류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담양과 전북 순창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지난 2003년부터 ‘구국순담 (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공동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가뭄 극복을 위해 순창 구림면 도수터널 차수벽을 철거해 용수를 공급하고, 지난 9월에는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맺는 등 끈끈한 우호를 다져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이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사회단체 간 교류로 ‘딱 찜매어’ 이어지길 바란다”며 “진정한 상생의 길을 함께 걷자”고 말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과 순창은 차로 20분 거리의 이웃이자 정책적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공동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농축협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고흥군 내년도 유기농자재 지원 접수

내달 24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녹비 종자 전액·자재 50% 지원

고흥군이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6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녹비 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나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다. 사업에 선정되면 녹비 작물 종자 구입비는 전액 (100%) 지원받을 수 있다. ha당 지원 한도는

▲헤어리베치 60kg ▲녹비 (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연맥 160kg 등이다.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는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ha당 ▲유기 인증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관행 농업 100만원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유기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